

朝鮮朝文集에 나타난 「關廟」 關聯 詩文의 樣相과 그 意味*

金 東 旭**

차 례

1. 머리글
2. 「關廟」의 설치배경
 - 2.1. 중국의 「關廟」 설치
 - 2.2. 조선의 「關廟」 설치
3. 중국 소재의 「關廟」
 - 3.1. 使行錄의 일부로서의 「關廟」 산문
 - 3.2. 感懷詩와 風物記로서의 「關廟」 제영
4. 한국 소재의 「關廟」
 - 4.1.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서의 「關廟」 산문
 - 4.2. 다양하게 노래된 「關廟」 제영
5. 마무리

1. 머리글

蜀漢 五虎大將의 한 사람인 關羽(160?~219)는 後漢 桓帝 延熙 3년(160)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62-B00002).

**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waspi@naver.com

무렵 山西省 解縣에서 출생하여 獻帝 建安 24년(219) 뭇나라에서 피살되었다.¹⁾ 그의 수급은 曹操에게 보내져 洛陽의 關林에 매장되었고, 그의 시신은 湖北省 當陽縣의 關陵에 매장되었다.

그는 생애를 통해 한 번도 당시 촉한의 거점인 四川 지역에 발을 들여 놓았던 적이 없었으나 촉한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관우에 대한 숭배는 唐나라 중기 이후부터 시작되어 宋代에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²⁾, 明·淸시대 이후로는 軍神은 물론 財神으로까지 숭앙되었다.³⁾

朝鮮朝에서도 壬辰倭亂 이후 關廟⁴⁾를 건립하는 등 관우에 대한 숭배가 시작되어 舊韓末까지 확산되었다. 조선조 문집에는 使行 등 중국여행을 하며 견문한 關廟에 대한 산문기록과 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국내에 조성된 關廟에 대한 산문기록과 시 또한 다수 실려 있다. 이들 자료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여 조선조 사람들의 관우에 대한 의식과 그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2. 「關廟」의 설치 배경

2.1. 중국의 「關廟」 설치

後漢 이후 중국 역대 왕조에서 관우에게 작위를 봉하거나 사당을 건립한 기록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1) 관우에 관한 정사 기록은 『三國志』 蜀書 「關張馬黃趙傳」에서 볼 수 있다.
 - 2) 김탁, 『한국의 관제신앙』, 서울 : 선학사, 2004, 12~13쪽.
 - 3) 같은 책, 15~16쪽.
 - 4) 관우의 사당에 대한 명칭은 關廟·關侯廟·關王廟·關帝廟·關聖廟·關雲廟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關廟로 통칭하고, 작품이나 인용문 등에서는 원래 표기한 대로 쓰기로 한다.

- 후한 헌제 건안 5년(200), 조조가 표를 올려 漢壽亭侯에 봉함.
- 촉한 후주 경요 3년(260), 사후 41년 되던 해에 壯繆侯에 봉함.
- 당 덕종 건중 3년(782), 태공망 여상을 주신으로 모시는 武聖王廟에 從臣으로 배향.
- 송 태조 개보 3년(970), 전대의 공신을 사당에 봉안할 때 관우도 함께 모심.
- 송 철종 소성 3년(1096), 관우의 전설이 전하는 玉泉寺에 '顯烈廟'라는 편액 하사.
- 송 휘종 승녕 원년(1102), 이민족과의 대치 상태에서 관우의 음조를 바라며 忠惠公에 봉함.
- 동 4년(1105), 崇寧至道眞君으로 개봉함.
- 동 대관 2년(1108), 武安王에 봉함.
- 명 태조 홍무 1년(1368), 漢壽亭侯라는 봉호를 다시 내림.
- 명 세종 가정 10년(1531), 漢前將軍漢壽亭侯로 개봉함.
- 명 신종 만력 10년(1582), 協天大帝로 격상시켜 이후 關帝 신앙이 본격화 됨.
- 동 18년(1590), 協天大帝護國眞君에 봉함.
- 동 42년(1614), 三界伏魔大帝神威遠鎮天尊關聖帝君에 봉해 신격화함.
- 청 태종 천총 1년(1627), 조선 정벌 시 關帝를 三軍之帥로 받들.
- 동 2년(1628), 瀋陽 북문에 關帝廟를 짓고, 義高春秋라는 편액 하사.
- 청 세조 순치 원년(1644), 燕京에 관제묘 건립.
- 동 9년(1652), 忠義神威關聖大帝에 봉함.
- 동 12년(1655), 북경의 9개 성문마다 관제묘 건립.
- 청 세종 옹정 5년(1727), 直省郡邑에 모두 관제묘 건립.⁵⁾

특히 남송 시대에 관우에 대한 숭배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게 된 배경을 김탁은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이민족과의 오랜 전쟁과 대치상태에서 무엇보다도 한족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일이 긴박한 과제였다. 위기에 처한 왕조에 대한 충성이 결정적으로 요청되던 이러한 시기에 관우는 한 왕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忠義의 化身'으로 부각되었다. …… 몽골족 정권인 원나라도 정책적

5) 김탁, 앞의 책, 16~23쪽.

차원에서 관제신앙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즉 원의 통치자들은 漢 민족을 원활하게 통치하고 교화하기 위해 몰락한 송의 귀족이나유력자들의 협조를 구해야 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송의 호국신이었던 관제를 수용했다. 그리고 관제신앙은 피지배계층의 새로운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유용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려했다. 그 결과 관왕묘가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곳곳에 설립되었고, 관제신앙에 대한 책이 간행되기 시작했다. …… 그(명 태조)는 홍무 28년(1395)에 남경 계명산에 황실 전용 사원인 鷄鳴寺를 짓고 관리를 파견하여 관제의 출생일인 5월 13일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후 관제묘에는 관원·제수 등이 명시되어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제사지냈다.⁶⁾

위의 자료들을 통해 볼 때, 중국인들이 가져온 관우에 대한 숭배의식의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쟁 때에는 軍神으로, 태평시에는 가뭄 질병 기근을 해결해주는 신으로, 재난을 예지하는 신, 요괴를 퇴치하는 신,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신, 天界를 지키는 신으로 숭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2.2. 조선의 「關廟」 설치

조선의 관묘는 1597년(선조30) 정유재란 이후에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정유재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명나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었으나, 건립 초기에는 위정자들조차도 관묘 제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명나라 장수 楊經理가 선조32년(1599) 관묘에서 불교의식인 수륙재를 지내려 한 데 대해 『선조실록』에서 史官은 “관우는 부처가 아니라 중국 사람인데 관묘에다가 도량까지 세웠으니, 그 황당하고 망령됨이 이와 같다.”⁸⁾고 비난하였다.

선조 때의 문신인 許筠(1551~1588)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1574)

6) 같은 책, 18~19쪽.

7) 같은 책, 41쪽.

8) 『宣祖實錄』 권117. 선조 32년 9월 계해일조 기사 참조.

명나라에 사행으로 갔다가 명나라가 건국될 때 관우의 신병이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우의 혼백이 한나라가 망하는 것도 막지 못했는데 수 천 년 뒤에 명 태조 주원장을 신병으로 도왔다는 영험담은 전설일 따름”⁹⁾ 이라고 일축하였고, 역시 선조 때의 문신인 尹國馨(1543~1611)도 “관우는 남의 손에 죽음을 당한 사람일 뿐인데 중국에서 이처럼 존경하니, 그 까닭을 알 수 없고, 어떤 사람의 말에는, 명 태조 주원장 때에 신병을 내어 도왔다고 하나 알 수 없다.”¹⁰⁾라고 하여 관묘의 건립이나 제향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조선시대 관우의 사당을 건립한 기록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선조 31년(1598) 3월 : 명나라 장수 茅國器가 경상북도 星州에 關侯廟 건립.
- 동년 3월 : 명나라 眞定營都司 薛虎臣이 경상북도 安東에 건립.
- 동년 5월 : 명나라 장수 陳寅이 서울에 南關王廟 건립.
- 동년 7월 : 명나라 都督 陳璘이 전라남도 완도군 古亭島에 건립.
- 선조 32년(1599) 1월 : 명나라 장수 藍芳威가 전라북도 南原에 건립.
- 선조 35년(1602) 8월 : 朴禹衡이 동래부사 朴齊寬에게 요청하여 서울에 東關王廟 건립.
- 고종 20년(1883) 가을 : 서울 惠化門 안의 松洞에 眞靈君이라는 무녀가 획책하여 明成皇后가 건립. 關羽廟라 부르다가 1901년 關帝廟로 개칭.
- 고종 21년(1884) : 判官 吳上俊이 江華島에 南關雲廟 건립.
- 고종 22년(1885) : 馬女史가 강화도에 東關帝廟 건립.
- 고종 24년(1887) : 관우의 현몽을 얻은 村老가 경상남도 하동군 解良村에 건립.
- 고종 29년(1892) : 강화산성 수문장 尹義普가 강화도에 北關雲廟 건립.
- 고종 31년(1894) : 청나라의 요청으로 경기도 開城에 건립.
- 동년 4월 : 전라도 관찰사 金聲根과 南固別將 李信文이 각처 유지들의 현

9) 許篈, 『朝天記』上, 갑술년 6월 24일조, 但雲長之精神氣魄。死後不能扶漢之亡。而乃云佐佑太祖於數千載之下者。寧有是理哉。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연행록선집』1, 민족문화추진회, 1976, 337쪽.

10) 尹國馨, 『甲辰漫錄』, 關王雖是忠勇之將。而身死人手。非功存後世之人。而中原尊敬如此。未知其然。或云高皇帝時。出神兵以助云。然未可知也。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대동야승』14, 민족문화추진회, 1971, 76쪽.

금을 모아 전라북도 순수에 關聖廟 건립.

- 고종 광무6년(1902) 12월 : 서울 서대문구 天然洞에 賢靈君이라는 무녀가 획책하여 嚴妃가 건립하여 崇義廟라 불렀으나 세상에서는 西廟로 불림.
- 고종 때 : 서울 普信閣 옆에 顯聖廟 건립.¹¹⁾

선조 때에 건립이 시작된 관묘는 그 제향이 광해군 때에 이르러 국가적 의례로 자리 잡게 된다. 광해군 4년(1612) 6월에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치던 광해군은 蠶所¹²⁾의 禮에 따라 매년 춘추로 경칩일과 상강일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향토록 하였다.¹³⁾ 또한 인조 11년(1633) 7월에는 관왕묘의 수직관을 우대하여 승진시키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였다.¹⁴⁾

조선시대 관묘는 제향을 하여 관우 혼령의 가호로 국가의 안녕을 비는 일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었으니, 그것은 일본을 오가는 조선의 통신사 사신단이 전별연을 벌이기도 하고 출궁 직후나 입궁 직전에 관복을 갈아입는 장소로도 이용이 되었던 것이다. 왜국행에 대한 각오와 관왕의 가호를 기원하기 위해, 왜국에 다녀와서는 여정의 무사함을 입궐에 앞서 사례하기 위해서¹⁵⁾였을 것이다.

3. 중국 소재의 「關廟」

3.1. 使行錄의 일부로서의 「關廟」 산문

중국 소재 「관묘」에 대한 산문 기록은 대체로 명에 사신으로 갔던 이들

11) 김탁, 앞의 책, 50~52쪽.

12) 軍神인 蚩尤를 蠶神으로 모시고 뚝섬에서 지냈던 국가적인 祭禮임.

13) 『光海君日記』 권54. 광해군 4년 6월 갑자일조 기사 참조.

14)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7월 임인일조 기사 참조.

15) 장장식, 「서울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409~412쪽.

의 朝天記錄이나 淸에 사신으로 갔던 이들의 燕行記錄에 나타나 있다. 그들이 본 「관묘」가 굉장·엄숙·장려하다는 진술, 그 건립사실에 대한 서술, 관왕 존숭의 풍속 서술, 그에 대한 반성적 비판 등으로 나타난다. 먼저 장엄하다는 진술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안정문을 거쳐 제미문·진사문 등과 상서리 대중승의 규광문·안림문·총회문 등 3문을 지나서 서문을 벗어나 관왕묘를 지났는데, 관왕묘는 장엄하고도 아름답고 그윽하였으며, 가운데는 푸른 소나무가 울창하였다. 요좌에는 송백이 없었는데, 유독 이 관왕묘에만 있는 까닭에 관왕묘의 푸른 소나무[關廟靑松]가 요양의 8경에 든다고 하였으니, 그 귀한 것을 볼 수 있다.¹⁶⁾

이 글을 쓴 許筠은 만력2년 갑술년(1574) 聖節使의 書狀官으로 자청하여 명나라에 가서 기행문 「朝天記」를 썼다.¹⁷⁾ 이 글에서 허봉은 자신이 본 「관묘」를 '장엄하고도 아름답고 그윽하다[壯麗嚴邃]'고 진술하였다. 요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가 없었는데 유독 이 관왕묘에만 있는 까닭에 '요양 8경'에 든다고 하였으나, 오늘날 일컫는 '요양8경'에는 '관묘청송'이 들어 있지 않다. 다음의 자료도 그와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초엿새 갑오일에 장구현에 이르렀다. ... 듣자니 (장구현에서) 동남쪽으로 30리가량 되는 곳에 명수진이 있는데,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와 명수라고 한다. 주민이 많고, 진신사족들이 그곳에서 다수 배출되었다고 한다. 장구현 성 안에 인물들이 많고, 패루가 길거리 여기저기에 서 있었다. 이름난 벼슬아치도 자못 많았다. 지나가는 길의 성황사·관묘·약사·옥황묘 등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였다. 곳곳이 모두 그러하여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다.¹⁸⁾

16) 許筠, 「朝天記」上, 「荷谷集」萬曆2年: 갑술 6월 28일(辛未) 余等由安定門。歷濟美。進士等門。尙書里大中丞奎光, 按臨, 總會三門。出西門。過關王廟。廟宇壯麗嚴邃。中有蒼松鬱然。遼左絕無松栢。獨此廟有之。故關廟靑松 入於遼陽八景云。可見其貴也。

17) 許筠, 「荷谷先生年譜」, 앞의 책, 甲戌 拜禮曹佐郎。自請爲書狀官赴朝

18) 李民成, 「朝天錄」中, 「敬亭集」續集 卷2, 계해 7월6일(갑오) 初六日甲午。到章丘縣。...聞東南三十里有明水鎮。有泉涌出曰明水。人居稠密 搢紳士族。多出其處

이 글을 쓴 李民成(1570-1629)은 계해년(1623) 인조반정 후 사헌부 장령에 복직하여 奏聞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당시 「관묘」등을 보고 쓴 것이 위의 글이다. 여기서는 「관묘」만이 아니라 성황사, 악사, 옥황묘 등이 모두 규모가 굉장하고 화려하다고 하였다. 다음의 자료에서는 심리보에 있는 「관묘」의 건치 사실을 비문 기록을 통해 소개하고 그 일에 조선왕조의 인물이 관여하였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나는 지난날 연경에 갔었는데, 요동에서 연경에 이르는 수천 리의 각 성, 큰 고을과 인가가 모여 있는 곳 어디에나 관왕묘를 세우고 관공에게 제사를 지냈다. 일반 민가에서도 관공의 화상을 벽에 걸어놓고 분향을 하며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제를 지내며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관원이 처음 부임할 때 재계하고 관왕묘에 가서 자며 참배하는데, 대단히 엄숙하고 경건하였다. 내가 이를 괴이하게 여겨 그곳 사람들에게 물으니, 이는 북방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 천하 어디서든 모두 그러하다고 말하였다.¹⁹⁾

위의 글은 柳成龍(1542~1607)이 기사년(1569)성절사의 서장관이 되어 명나라에 가서²⁰⁾ 견문한 것을 쓴 기록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중국에서는 관묘에서의 관왕 숭배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 가정에서도 모두 관왕의 화상을 걸어 놓고 숭배하는 풍속이 있었음 알 수 있다.

심리보는 일명 심리하라고도 하고, 호피역이라고도 부른다. 관묘가 한 채 있는데 섬돌 아래 이름을 새긴 비석이 있었다. 승덕 임오년에 세웠고, 회순왕 공유덕·공순왕 경중명·치순왕 상가희 등의 이름이 비의 음기에 적혀

云。縣城內人物殷庶。牌樓縱橫於街路。名宦頗多。所過城隍關廟嶽祠玉皇廟之宏大侈麗。在在皆然。不可盡記。

19) 柳成龍, 「記關王廟」, 『西厓集』卷16. 余往年赴燕都。自遼東至帝京數千里。名城大邑及閭閻衆盛處。無不立廟宇。以祀漢將壽亭侯關公。至於人家。亦私設畫像掛壁。置香火其前。飲食必祭。凡有事必祈禱。官員新赴任者。齊宿謁廟甚肅虔。余怪之。問於人。不獨北方爲然。在在如此。遍於天下云。

20) 柳成龍, 「年譜」, 『西厓先生年譜』卷1. 三年己巳。先生二十八歲…十月。以聖節使書狀官兼司憲府監察赴京。時李青蓮後白爲正使。先生以書狀輔行。

있고, 그 밑에 여러 장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중 박중선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포로로 잡혀 간 우리나라 사람인 듯하다.²¹⁾

다음은 李德懋(1741~1793)가 顧炎武·朱彝尊 등 明末清初의 고증학 대가들의 저서에 심취한 나머지 무술년(1778, 정조2) 謝恩兼陳奏使 沈念祖의 서장관으로 직접 燕京에 들어갔을 때²²⁾의 기록이다. 먼저 중국의 문헌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였다.

謝肇淪가 지은 『五雜俎』에는, “당나라 이전에는 주허후 유장을 높이 받들어 집집마다 사당을 세우고, 호호마다 지금의 관왕에게 빌 듯 복을 빌었다 한다. 그러나 장무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주허후의 신은 또 어디로 갔는가? 지금 세상에 숭봉하는 바른 신으로는 관음보살·진무상제·벽하원군 등 셋이 있어 관장무과 더불어 향화를 한가지로 받고 있다. 그러므로 부녀자들은 주공과 공자에 대하여 말을 하면 혹 알지 못하나, 이 네 신만은 공경히 믿으며, 감히 마음속으로 그르게 여겨 거리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없으니 또한 천지와 더불어 길이 존재할 것이다.”하고, 또, “관왕은 당나라 이전에는 소문이 있지 않았는데 송나라에 이르러 염지의 일로 인해 마침내 영험이 나타났다.” 하였다.²³⁾

당나라 이전에는 사람들이 주허후를 받들었는데 송대 이후부터는 관왕

- 21) 李德懋, 「正祖二年四月二十日」, 『入燕記』上, 『靑莊館全書』卷66. 十里堡。一名十里河。亦名虎皮驛。有關廟一座。階下有題名碑。崇德壬午建。懷順王孔有德。公順王耿仲明。治順王尚可喜。列名於碑陰。其下列書諸將佐。有朴仲先者。似是我國被擄人也。
- 22) 李德懋, 「正祖二年戊戌三月十七日」, 같은 책, 같은 곳. 上之二年戊戌三月十七日丁丑。… 余與朴在先齊家。願欲一見中原。齋志未果。至是。沈焦齋念祖。充謝恩陳奏使書狀官。與余有雅。要余偕行。在先亦隨上使蔡公濟恭而入焉。連袂並轡。萬里跋涉。
- 23) 李德懋, 「朱虛侯」, 『盜葉記』3, 『靑莊館全書』卷56. 五雜俎 謝肇淪撰 曰。唐以前。崇奉朱虛侯劉章。家祠戶禱。若今之關王云。然自壯繆與朱虛之神。又安之也。今世所崇奉正神。尙有觀音大士。眞武上帝。碧霞元君三者。與關壯繆。香火相埒。婦人女子。語以周公孔子。或未必知。而敬信四神。無敢有心非甚議者。行且與天地俱悠久矣。又曰。關王自唐以前。未之有聞。迨宋以塩池一事。遂著靈異。

이 그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이덕무는 “신은 스스로 영험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여 그에 따라서 성하고 쇠하는 것이니, 지극한 정성이 독실하면 이치가 갖추어지고 형세가 중하면 기가 웅한다고 본다. 한나라로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주허후를 집집마다 경건하게 받들었으니 자연 오늘날 관왕과 같이 영험이 있었을 것인데 전기로는 상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허후의 쇠퇴는 인심이 또한 해이해짐에 따라 신도 영험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관왕묘가 처음 왕성할 때에는 공사 간에 경건히 받드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날마다 보태어졌으니 그 영험의 보응을 확실하게 근거할 만한 것들이 이따금 있었다. 그러나 가령 몇 백 년 뒤에 경건히 받든 사람들이 쇠퇴해지면 신도 끝나고 또 그 뒤를 이어 일어나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 예로는 악무목과 같은 유로씨 영험이 관왕보다 못하지 않았던 것이다.”²⁴⁾라고 하여 주허후든 관왕이든 악무목이든 그러한 신이 스스로 영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 그에 따라 성하고 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덕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李灑의 『星湖僊說』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인용하였다.

축윤명의 「관왕묘기」에 “송나라 때에는 무안왕으로 추봉하고 묘호를 의용이라 하였다. 그리고 도가에서도 그를 높여 신군으로 삼았다.” 하였는데, 무엇이 청정무위한 도가에 관계되기에 숭상하여 신봉함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생각건대, 수련의 술법은 반드시 귀매를 몰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 뜻으로 볼 때 명나라에서 북마왕으로 추봉한 것이 바로 그 사실이다. 서국 주종원의 말이 가장 실지에 맞는다. 그는 “명나라의 북마란 마귀를 구제했기 때문이다. 마귀의 성품은 본디 제 몸을 떠받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옛 선비의 명목을 가탁하여 나타나서 신이를 부려 사람들로 하여금 우

24) 같은 글, 神不自靈。依藉人心。隨以盛衰。誠篤則理具焉。勢重則氣應焉。自漢至唐。家家虔奉。則自有靈驗。如今日之關王。而傳記不可攷。然朱虛之衰。人心亦弛。而神亦無靈。關廟始盛。公私之虔奉。歲加日添。其所靈應。灼然可據者。往往有之。假令幾百年後。虔奉始衰。則神道亦歇。又有繼起者。如岳武穆之類。其靈驗。不下於關王矣。

러리보게 하는 것이고, 참으로 관우의 신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²⁵⁾

3.2. 感懷詩와 風物記로서의 「關廟」 제영

중국 소재 「관묘」에 대한 제영은 대체로 관왕에 대한 존숭, 「관묘」를 통해 느낀 인생무상을 노래하는 등 感懷詩와 관왕을 존숭하는 풍속에 대한 묘사, 관왕 존숭 풍속의 변질과 반성적 비판 등 風物記로서의 시가 있는가 하면 「관묘」가 단순한 소재로 쓰인 시, 작자의 개별적 감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적을 쫓아달라고 기원하는 시 등으로 나타난다. 먼저 관왕에 대한 존숭을 나타낸 시를 보기로 하자.

한 번 도원결의하여
산을 무너뜨리고 큰 공을 세웠네.
창을 휘두르매 쟁쟁하게 비추는 해가 머물고,
칼을 뽑으니 청룡이 노한 소리를 내네.
위엄을 삼분천하에 강하게 떨치고,
명성을 백대에 드높여 드리웠네.
형용은 완연히 어제 본 듯하여,
예를 갖춰 영웅적 풍모에 읊을 하네.
結桃園義。摧山立大功。揮戈留白日。拔劍吼青龍。
威振三分壯。名垂百代崇。形容宛如昨。罄折揖英風。²⁶⁾

위의 시를 지은 朴而章(1547-1622)은 신묘년(1591) 서장관으로 명나라를 다녀왔다.²⁷⁾ 그 당시 장진포의 관왕묘에서 이 시를 지었다. 도원결의

25) 德懋以爲李氏僉說曰。祝允明關王廟記。宋時。追封武安王。廟號義勇。而道家又崇之爲神君。何(何)關於清淨無爲之道家。而崇信至此。意者。修鍊之術。必驅除鬼魅故然也。明之追封伏魔。卽其事也。西國宋宗元之說。最得其實。宋之伏魔。卽以魔驅除也。魔性本欲奉己。故假古士名目。現爲神異。使人仰望。非眞有關羽之神如此也。

26) 朴而章, 「壯鎮浦關王廟」, 「龍潭集」卷2.

이후에 공을 세우는 관왕의 모습을 창칼을 휘두르며 해가 멈추고 청룡이 노호하는 것으로 그렸다. 위엄은 당대에 떨치고 명성은 후대에 길이 드리웠다고 칭송하였다. 생생한 관왕상을 대하여 예를 갖추는 것으로 존송의 뜻을 표현하였다.

삼국의 전쟁은 육도삼략에 온축되어 있어,
 당시 장군은 소하와 조참을 비웃었네.
 새로 지은 사당 곳곳에서 장군의 상을 바라보니,
 천년 영웅의 풍모에 귀밀털이 곤두서네.
 三國兵戈蘊六韜。將軍當日哂蕭曹。新祠處處瞻遺像。千載雄風豎鬚毛。²⁸⁾

이 시의 작자인 韓應寅(1554~1614)은 갑신년(1584) 宗系辨誣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일이 있다. 그 당시 여양의 「관묘」에서 떠오른 시상을 읊은 것이 위의 시다. 蕭曹는 西漢 개국의 1등 공신인 蕭何와 曹參을 말한다. 작자는 관왕을 소하나 조참보다도 높이 추켜세우며 천년의 영웅적 풍모에 머리털이 곤두선다고 존송의 뜻을 나타냈다.

관왕은 본디 한나라 장군으로
 백전의 명령이 구천에서도 늠름하네.
 의로운 한 평생 세월이 흘러도 전해지고,
 위엄 있는 명성은 세대가 달라도 천지를 뒤흔드네.
 음병으로 도와주는 신공이 두드러져,
 성대한 의식에서 충의의 존호 현저하네.
 우뚝한 사당이 천지에 가득 차니,
 강동의 못 줌도적들 뉘 다시 떠들거나.
 關王本是漢將軍。百戰英靈凜九原。義膽平生懸日月。威名異代震乾坤。
 陰兵助順神功著。盛典褒忠顯號尊。祠屋巍然滿天下。江東群鼠復誰論。²⁹⁾

27) 趙綱, 「行狀」, 『龍潭集』卷7. 辛卯. 以書狀官赴天朝.

28) 韓應寅, 「閩陽·題關王廟 甲申朝天時沿途作」其二, 『百拙齋遺稿』卷1.

29) 李安訥, 「關王廟」, 『東岳集』卷2. 朝天錄.

명나라에서 반적 양용룡을 토평한 일을 축하하기 위해 신축년(1601)에 진하사를 보낼 때 서장관으로 수행한 李安訥(1571~1637)이 「관묘」를 보고 지은 것이 위의 시다. 평생의 충의로움과 위명이 시대와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하다며 존숭의 뜻을 나타냈고, 神兵으로 陰助한다는 전설을 이끌어 존숭의 뜻을 한층 드높였다.

중국 땅에 있는 「관묘」를 보면서 지은 시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회고의 뜻을 말하면서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金克成(1474~1540)은 경신년(1500)에 성절사 서장관으로 연경에 갔다.³⁰⁾ 어느 곳의 「관묘」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퇴락한 사당에서 처음으로 관왕상과 조우하게 된 듯하다.

일찍이 역사에서 장군을 알았는데,
 그때마다 관우 장비 귀에 못이 박혔네.
 오늘 천리타향의 나그네가 되어,
 황폐한 사당에서 처음 장군을 만났구려.
 사당 뜰은 시든 풀에 묻혀 적막하고,
 금빛 갑옷은 저녁 구름에 갇혀 처량하네.
 말 달려 안량을 무찌르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고,
 촉산 그 어디에 충신은 묻혔는가.
 曾於青史識將軍。每說關張屬耳聞。千里他鄉今作客。一間荒屋始逢君。
 祠庭寂寞埋秋草。金甲淒涼鎖暮雲。躍馬刺良終不見。蜀山何處葬忠墳。³¹⁾

역사를 읽으며 관우 장비를 알게 된 작자는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다고 하였다. 특히 관우에 관한 그의 인상적인 기억은 조조를 위해 원소의 휘하 용장인 안량을 무찌르던 모습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회고의 정을 품은 채 천리타향에서 만난 「관묘」는 인간사가 무상함을 일깨워줄 뿐이었다. 황폐한 사당, 시든 풀로 적막한 뜰, 저녁 구름에 갇혀 처량해 보

30) 李慶倬, 「行狀」, 『憂亭集』卷5. 附錄. (成化)十三年. 以聖節使書狀官赴燕.

31) 金克成, 「謁關王廟」, 『憂亭集』卷3.

이는 금갑 등이 그러한 일깨움을 매개해 주었다는 것이다.

남은 비석 반이 벽오동 그늘에 묻히고,
 옛 전자는 이끼에 묻혔으니 세월이 오랬구나.
 장한 기백과 영령은 아득히 적막하고,
 그림 그린 대들보에 제비만 날아드누나.
 殘碑半入碧梧陰。古篆苔封歲月深。壯氣英魂渾寂寞。畫樑唯有燕來尋。³²⁾

한용인이 종계변무주청사의 서장관으로 연경에 가던 길에 關陽에서 찾아본 「관묘」에는 비석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로 새긴 글씨에도 이끼가 덮여 있다고 하였다. 오래 된 세월만큼 장했던 관왕의 기백과 영령은 적막하고, 그러한 과거의 장한 모습을 기록한 비문은 이끼로 가려지고, 그런 모습을 그린 대들보의 그림만이 남아 제비가 찾아들 뿐이라는 것이다. 회고의 정은 가려진 비문이나 그림으로만 남아 있고, 훼손되어 그늘진 비석이나 이끼에 덮인 비문은 인간사가 무상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영웅적인 재주와 기이한 운명을 타고났는데,
 천시는 어찌하여 마음과 어긋났는가.
 만고의 영웅적 풍모는 외로운 무덤으로 남았으나,
 평생의 장한 뜻은 이 한 칼이 알리라.
 마침내 공명은 더벅머리에게 돌아갔으나,
 그때는 오나라도 위나라도 짓먹이로 보았네.
 강회는 남긴 분함을 쏟아 흘려 그치지 않는데,
 관왕묘는 오히려 동이족이라고 꺼려하는 듯.
 才賦豪雄命賦奇。天時其奈與心違。英風萬古孤墳在。壯志平生一劍知。
 畢竟功名歸髻子。當時吳魏視嬰兒。江淮不盡傾遺憤。而廟猶能讐九夷。³³⁾

위의 시는 李廷龜(1564~1635)가 무술년(1598) 종계변무주청사의 부사

32) 韓應寅, 「關陽 題關王廟 甲申朝天時沿途作」其一, 『百拙齋遺稿』卷1.

33) 李廷龜, 「次關王廟韻」, 『月沙集』卷2. 戊戌朝天錄 上.

로 연경에 갔을 때 지은 것이다. 이 시에서도 '영웅적인 재주', '기이한 운명', '만고의 영웅적 품모', '평생 장한 뜻' 등은 작자가 느낀 회고의 정이다. 그러나 '마음과 어긋난 천사', '외로운 무덤', '더벅머리에게 돌아간 공명', '남긴 분한' 등은 인간사가 무상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회고의 정을 통해 관왕을 애처롭게 여기며 다가서려는 작자에게 관왕상은 낯설게만 느껴졌었던 모양이다. 이 시의 제8구에 그러함이 드러나 있다.

문 앞의 옛 빗돌은 이끼 속에 누웠는데,
 소조한 덩불속에 한 이랑 사당 있네.
 전각 기둥의 깃발은 저녁놀에 눈부시고,
 담 머리 삼나무 회나무는 찬바람에 울고 있네.
 단청한 그림 벽엔 구름과 뇌성이 굉장하고,
 향불 타는 빈 사당엔 괴물이 우람하구나.
 지전으로 한 맺힌 뉘를 부르지는 말아다오.
 두견이 피울음 울어 들꽃이 붉었다네.
 門前古碣臥苔中。蕭颯叢林一畝宮。殿角幡幢明夕照。塙頭杉檜響淒風。
 丹青畫壁雲雷壯。香火空堂鬼物雄。莫把紙錢招怨魄。杜鵑啼血野花紅。³⁴⁾

한응인이 보았던 여양의 「관묘」처럼 許筠(1569~1618)이 정유년(1597) 조천행에 장진보에서 찾아본 「관묘」도 피폐해지기는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깨지지 않는 듯하지만 옛 빗돌이 이끼 속에 쓰러져 있고, 사당은 쓸쓸한 수풀 속에 자리했다고 하였다. 담 머리에 심어놓은 삼나무와 회나무 등 상록수는 푸른 빛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에 울고 있다고 하였다. 옛 영웅적인 면모를 그린 벽화에는 구름과 뇌성만 요란하고, 사당 안에는 괴물 같은 관왕상이 우람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것이다. 사당 안에 있는 붉은 꽃은 마치 두견화처럼 관왕의 한 맺힌 피눈물이 흐른 듯하다는 말이다.³⁵⁾ 인간사의 무상함만을 여러 가지로 읊었다고 하겠다.

34) 許筠, 『壯鎮堡關王廟』, 『惺所覆瓿稿』卷1. 丁酉朝天錄

35) 원주에 “사당 안에 붉은 꽃이 있어 우리나라 두견화와 흡사하므로 결구에 언급하였다.(廟有丹葩。似我國杜鵑花者。故結句及之。)”고 하였다.

세상의 풍속은 금세 쉽게 사라지지 않아,
 선과 악이 한 그릇 안에 다 담겨 있네.
 크고 작은 신을 모신 사당은 집집마다 있는데,
 관묘의 단청은 어디나 한가질세.
 상복 입은 오랑캐는 흰옷을 끌고,
 치마 두른 촌 아낙은 붉은 꽃을 꽃았네.
 연나라 땅은 본디 선비족의 땅이라,
 지금처럼 이런 풍속은 없었다네.
 謠俗看看未易窮。薰蕕一器并包中。叢祠大小家家是。闕廟丹青處處同。
 持服野奴拖帶白。結岐村女載花紅。幽燕自是鮮卑地。不獨如今有此風。³⁶⁾

이 시는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청나라 때 중국 동북지방의 풍속을 노래한 것이다. 沈鎰(1685~1753)은 무신년(1728) 여행 길에 현지인들이 관왕을 존송하는 풍속을 보고 이런 시를 지었던 것이다. 집집마다 크고 작은 신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관왕을 모신 사당만큼은 어느 집이나 똑 같은 단청을 했다고 하였다. 제2구의 '훈유'는 향기로운 풀과 악취가 나는 풀이란 뜻으로, 관왕신과 그밖의 잡신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대에 따라 풍속도 달라짐을 7~8구에서 말하였다.

회령의 숲에 산마루 해가 비치는데,
 4월 18일 관묘의 문을 여네.
 관제는 이 날 태어나셨다고,
 이웃에서 기도하느라 서로 부르네.
 유벽거 타고 풀밭을 누비는
 젊은 아낙네들 하나같이 곱게 화장했네.
 구름 같은 머리를 쪽 지어 올리고,
 검은 비단으로 머리 싸맨 모습이 묘하구나.
 걸음걸음 오색의 구슬이 점칠되고,
 교묘히 머리에 꽃은 꽃이 서로 닮았네.

36) 沈鎰, 「謠俗」, 『楞村遺稿』卷6.

예쁘게 화장하고 서로 뽑내며,
 늙은이고 젊은이고 담배를 빨아대네.
 조선의 사신이 온 것에 놀라서는
 빙 둘러싸고 다투어 바라보네.
 시집 안 간 듯이 보이는 소녀는
 고개 숙인 채 말없이 웃으며 힐끔거리네.
 종종 걸음으로 사당 문에 가득 들어가
 관제 앞에 향 태우고 네 번 절하네.
 중얼중얼 기도하는 말 알아듣진 못해도
 재앙을 쫓고 복을 달라는 말이 분명해.
 오랑캐 풍속엔 본디 예법이 없었고,
 하물며 이 땅은 변방임에라.
 수레에서 천천히 계명장³⁷⁾을 외우노라니
 어딘가 봄 연못에서 오리가 우는구나.

會寧林木山日照。四月十八開關廟。關帝云以是日降。隣里祈禱相呼召。
 油壁輕車碾細草。少婦箇箇明粧耀。斂上雲髮髻成梁。烏緞束首綦廻妙。
 行行點綴五色珠。巧插鬢花花相肖。臙紅粉白嬌相矜。細吸煙茶無老少。
 驚見箕邦使車至。環擁左右競瞻眺。少女應知未嫁人。低頭偷視不言笑。
 蓮步盈盈入廟門。帝前四拜名香繞。喃喃語多聞不知。的是災禳仍福要。
 胡俗本自無禮防。況乃此地是邊徼。車中緩誦鷄鳴章。何處春塘鳧鴨叫。³⁸⁾

정조 즉위 초인 무술년(1778)에 청나라에 보낼 사신단의 정사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던 정조는 蔡濟恭(1720-1799)에게 그 임무를 맡기기로 하였고, 채제공도 흔쾌히 그 명을 받들었다.³⁹⁾ 위의 시는 관왕의 탄생일에

37) 『詩經』齊風 鷄鳴章. 어진 임금, 어진 왕비가 밤낮으로 경계하여 서로 도왔던 것을 노래한 시다.

38) 蔡濟恭, 「關廟行」, 『樊巖集』卷13.

39) 蔡濟恭, 「含忍錄序」, 같은 책, 같은 곳. 戊戌三月初二日朝. 上命大臣承文院公事提調入侍. 提調即賤臣也. 冬至使先來. 方入來. 而以奏文中句語欠穩. 淸皇有嘖言. 意以爲上必有所俯詢事宜者. 忙赴闕. 及入侍. 上曰. 予新卽位而彼中事如此. 不可不差遣使臣. 上价難其人. 誰可任者. 大臣以數人對. 上默然. 顧賤臣曰. 予意欲煩卿一行. 何如. 臣起對曰. 臣許國一死. 國家有事. 臣安得不行. 況茲事. 本不大

중국 동북지방의 현지인들이 관묘에 찾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젊은 아낙들의 화장한 모습과 처장, 노소간에 허물없이 담배 피우는 모습, 중얼중얼 기도하는 모습 등이 마치 한 폭의 풍속화를 보는 듯이 그려졌다.

관왕묘는 사방이 똑같은데,
아로새기고 단정한 것이 온갖 기교를 다하였네.
제향은 도리어 공자의 문묘보다 많이 하는데,
음사이긴 오히려 절간과 비슷하네.
성대에 그의 충의 포장한 뜻을 뉘 알리오?
도리어 어리석은 백성들 귀신만 숭상하게 했구나.
군자는 오로지 은혜를 베풀어야 길함을 논할 뿐,
신이 복을 준다 한들 관왕이 무슨 공이 있나?
關王遺廟四方同。雕繪丹青百巧窮。禮享反多宣父殿。淫祠還類釋迦宮。
誰知聖代褒忠意。轉作愚黎尚鬼風。君子惟論惠施吉。神雖欲福渠何功。 40)

위의 시는 柳夢寅(1559~1623)이 지은 것이다. 유몽인은 관직에 있는 동안 세 차례나 중국에 다녀왔다. 경인년(1590)에는 수찬으로 명나라에 質正官으로 다녀오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를 평양까지 호종하였고, 왜란 중에는 問安使 등 대명외교를 맡았으며, 기유년(1609, 광해군1)에는 성절사 겸 사은사로 세 번째 명나라에 다녀왔다.⁴¹⁾ 위의 시는 세 번째 갔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관묘」에 대한 제사가 공자를 제향하는 문묘보다 더 잦은 반면 그 행태는 불교의식처럼 陰祀라고 하였다. 송대 이후 「관묘」를 세워 관왕을 褒獎한 뜻은 호지부지 사라지고, 관왕은 백성들이 복을 비는 귀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관왕을 존송하는 풍속이 변질된 것에 대한 반성적

段。只消一番行役而已。安敢辭爲。

40) 柳夢寅, 「關王廟」, 『於于集』卷2, 朝天錄

41) 徐有防, 「於于堂柳公行狀」, 『於于後集』卷6. 庚寅。由藝文檢閱。出爲江原都事。旋以質正官赴京。... 己酉(1609) 以聖節使兼謝恩使朝京。

비판을 담은 시라고 하겠다.

제왕을 일컬은 지 오랜 세월 지났지만,
 생전에 못나게도 수정후를 받아들였네.
 정신이 이르는 곳은 쇠나 돌이 아니니,
 관공은 죽어도 쉬지 않는단 말 낭설일세.
 稱帝稱王百萬秋。生前劣得壽亭侯。精神所到無金石。枉說公能死不休。⁴²⁾

이 시에 이르면 관묘를 지어 관왕을 숭상하는 일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입을 볼 수 있다. 한나라의 정통을 이은 유비를 섬기면서도 조조가 후한
 황제의 명의를 빌려 내려준 '수정후'라는 봉작을 관우가 받아들인 것은 명
 분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나 돌로 관왕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배례를 하는가 하면 관왕은 죽어서도 그 정신
 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일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 「관묘」가 단순한 소재로만 쓰인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체재
 공이 연산관에서 지은 시에 “화각으로 꾸민 관묘에/먼데 계문의 바람을
 끌어들이네.(畫角依關廟。長風引薊門。)”⁴³⁾라고 한 것이나 柳得恭(1749
 ~?)이 요양에서 지은 시에 “우거진 숲속 관묘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윽한 소리 내는 탑령을 저녁 바람이 재촉하네.(關廟森沈畫壁開。塔鈴幽
 語晚風催。)”⁴⁴⁾라고 하였던 바, 이들 시에서 ‘화각’이나 ‘벽화’는 별다른 함
 축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李晩秀(1752~1820)가 계해년(1803) 사은정사로 연행을 할 때 지은 시에
 “주막집 옆에 관묘가 있어/느릿느릿 잠시 찾아가 보네./그 옆에 조그만 서
 당이 있어/글 읽고 웃는 소리 시끌시끌 들려오네./장씨 성의 서당 훈장은/
 손님 맞느라 억지로 웃기를 여미네./묻지도 않았는데 내주에서 왔다며/궁
 벽한 시골에서 늙고 추레해졌다네./팔고문으로 남의 선생이 되어/과전을

42) 沈鎭, 「關帝廟」, 앞의 책, 卷6.

43) 蔡濟恭, 「宿連山關」, 「樊巖集」卷13.

44) 柳得恭, 「遼陽」, 「冷齋集」卷3.

받자니 참으로 부끄럽다고./도의 멀고 가까움을 알고자 한다면/마땅히 지혜의 길고 짧음을 견주어야지./밤들자 천둥 치며 큰 비가 내려/나그네의 배갓머리가 편안치 않네./고향 가는 꿈도 꾸지 못하고/홀로 외로운 등불과 동무하네.”⁴⁵⁾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의 「관묘」는 서당 주변의 한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관묘」를 개별감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도 몇몇 있다. 경술년(1790) 5월 청 건륭제의 八旬節에 정사 黃仁黈을 따라 두 번째 연행 길에 오른 朴齊家(1750~1805)가 7월 6일 세하를 건너 관묘참에 유숙하며 지은 시에 “왕명을 받들고 천리를 넘어 왔는데/달리는 수레는 아직도 쉬지를 않네./새벽의 관묘 앞길엔/낙엽 저 가을을 알리네./길이 봉수대 북쪽으로 접어들자/수숫대 위로 하늘이 드높네./중전에 연경 가던 나그네는/변방의 시름을 알지 못했건만.”⁴⁶⁾이라고 하여 천리타향에서 느낀 자신의 시름을 관묘 앞길에 떨어진 낙엽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누가 정성된 마음을 멀리 천자에게 아뢰리?
 전대할 이는 어질기도 한 공뿐이리.
 만리 험한 여로에 응당 모든 힘을 다하리니,
 백년의 부끄러운 욕을 이번에 씻어 내리라.
 오래 된 관왕묘엔 교목이 울창하고,
 싸늘한 석자하엔 저녁연기가 걸히누나.
 강과 바다 아득하여 이별의 한은 더해 가는데,
 눈 내린 창가에 홀로 앉았자니 처량하기만 하네.
 遠枕誰達九重天。專對惟公非獨賢。萬里艱關應盡瘁。百年羞辱此堪湔。
 關王廟古森喬木。石子河寒露晚蟬。江海茫茫饒別恨。空窓孤獨坐凄然。⁴⁷⁾

45) 李晩秀, 「記行」, 『履園遺稿』卷12, 8月 7日. 關廟在店側。緩步聊暫尋。傍有小學堂。講音哂誦誦。姓張老學究。迎賓強整襟。自言萊州人。潦倒老窮閭。八股爲人師。課錢良足慙。欲知道遠近。宜較智長短。入夜大雷雨。旅枕苦不穩。家山夢不到。獨與孤燈伴。

46) 朴齊家, 「七月六日。渡細河宿關廟站」, 『貞菴閣三集』. 銜命越千里。驅車猶未休。互更關廟路。一葉細河秋。路入烽烟背。天長蜀黍頭。從前燕薊客。應不識邊愁。

47) 李珣, 「寄別黃參判汝溫麻。以改宗系事。朝天奏請。時余在海州」, 『栗谷全集拾遺』卷1.

위의 시는 정축년(1577) 종계변무사⁴⁸⁾로 명나라에 가는 黃琳(1517~1591)에게 해주에 있던 李珥(1536~1584)가 지어 부친 것이다. 제2구의 '전대'는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모든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황임이 그러한 일을 맡기에는 적격이라는 것이다. 관왕묘의 울창한 교목은 관왕이 그랬듯이 바로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황임과 같은 인물의 비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자하에서 걷히는 저녁연기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종계의 변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결국, 관왕묘의 교목은 작자의 황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라는 감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다.

끝으로, 중국 땅의 관묘에 들러 우리 땅에 침입한 왜구를 몰아내 달라고 기원한 시가 있다. 金尙容(1561~1637)이 무술년(1598) 4월 성절사로 연행⁴⁹⁾하는 길에 장진보의 관묘에 들러, "청룡언월도와 적토마는 어디에 있는가./봉의 눈과 누에 눈썹은 엄연히 신과 같네./혁혁한 정령은 몽매하지 않으리니/원컨대 이 땅에 강림하사 요사스런 티끌을 쓸어주소서."⁵⁰⁾라고 읊은 것이 그것이다.

4. 한국 소재의 「關廟」

4.1.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서의 「關廟」 산문

국내에 있는 「관묘」에 대한 산문기록은 대체로 건치나 중수 경위 등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경우와 이미 건립된 사당에서의 제향에 대한 건의 등

48) 조선 건국 때부터 선조 때까지 200여 년간 명나라의 『태조실록(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말의 권신인 이인임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된 세계(世系)를 시정해 달라고 주청하기 위해 명나라에 파견된 사신을 말한다.

49) 金尙容, 「仙源先生年譜」, 『仙源遺稿』, (隆慶)二十六年戊戌。宣祖大王三十一年先生三十八歲。… 四月。差聖節使。如京師。十二月。復命。

50) 金尙容, 「題壯鎮堡城外關王廟」 후반부, 『仙源遺稿續稿』, 靑龍赤冕今安在。鳳眼豔眉儼若神。赫赫精靈應不昧。願臨東土掃妖塵。

이 대부분이다. 고금도의 관왕묘가 명나라 수군 도독인 진린이 그 섬에 주둔할 때 세운 것이라든가⁵¹⁾, 안동의 관왕묘를 중수하게 된 경위를 쓴 것⁵²⁾ 등이 건치나 중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예다. 또한 지방 관묘의 제례는 고금도의 경우에 준하게 하고, 그 節目은 서울의 동·남 관묘의 예에 따르게 하는 등 관묘 제례에 관한 건의를 한 사례도 있다.⁵³⁾

서울의 남관왕묘와 영남의 안동과 성주에 관묘를 건립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과 아울러 관왕에 대한 존송을 알려주는 자료가 있다. 柳成龍(1542~1607)의 관왕묘에 대한 기록이 그것이다. 앞부분에서는 무술년(1598)의 남관왕묘 건립 경위를 소개한 뒤 관왕상의 모습과 관왕에 대한 明朝의 존송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관왕상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얼굴은 질은 대추처럼 붉고, 붕의 눈에 수염은 배를 지나도록 드리워져 있었다. 좌우에 두 사람의 소상이 있는데, 큰 칼을 들고 시립해 있었다. 그들은 관평과 주창이라고 하는데 마치 산 사람처럼 엄연하였다. 이로부터 모든 장수들은 매번 출입할 때마다 참배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신의 도움을 청하여 왜적을 물리쳤다.”라고들 하였다. ... 서울의 관왕묘 앞에는 긴 장대에 깃발 두 개를 만들어 세워놓았다. 한 쪽에는 ‘협천대제’라고 썼고, 다른 한 쪽에는 ‘위진화이’라고 썼는데, 글자가 큰 서까래 만하였다. 바람이 불어 공중에서 깃발이 펄럭이면 원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우러러 바라보았다. 관우를 협천대‘제’라고 한 것은 명나라에서 추송한 것으로, 관우에 대한 존송이 지극하였음을 볼 수 있다.⁵⁴⁾

- 51) 李頤命, 『古今島遺祠記判府事李頤命』, 李舜臣, 『李忠武公全書』卷11. 附錄3. 古今島關王廟者 皇明水軍都督陳公璘之所建也。神宗皇帝萬曆戊戌 再發兵征倭 陳公將廣兵五千 與我統制使李公 共禦海道 來屯此島 廟建在其時也。
- 52) 金祖淳, 『安東關王廟重修記』, 『楓泉集』卷15. 今上十八年戊寅 府使尹公魯東 莅治經歲 政成而事舉 及環視廟宇 喟然興感 土木之頽圯者易之 神像之黝昧者新之 丹青改觀 體貌重嚴 祥慶之降 屈指可期。
- 53) 金昌集, 『古今島關王廟 陳都督, 忠武公李舜臣廟額號祭儀議』, 『夢高集』권10, 李頤命, 『古今島關王廟額號祭禮議』, 『蘇齋集』卷9, 金鎮圭, 『禮曹古今島, 安東, 星州關王廟祭儀磨鍊啓』, 『竹泉集』卷30. 등이다.
- 54) 柳成龍, 『記關王廟』, 『西崖集』卷16. 其像塑上爲之 面赤如重棗 鳳目 髻垂過腹 左右塑二人 持大劍侍立 謂之關平, 周倉 儼然如生 自是諸將 每出入參

유성룡의 기록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하게 관묘와 관련된 괴변을 서술한 것이 있어 당시 사람들이 관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관묘와 관련된 괴변은 임진왜란 후 인심이 안정되지 않은 데서 생겨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계묘년(1603) 봄 경강의 노량진에서 큰 돌이 물속에서 벌떡 일어나 물가의 다른 돌 위에 올라섰다. 또 황해도 풍천의 바다 속에서 돌이 물에 가라앉았다가 어느 날 다른 돌 위로 옮겨 가서 섰다. 또 강원도 양양 낙산사 아래서 두 돌이 바다 속으로부터 나와 바닷가 돌 위에 멈추었다. 또 경상도 경주 자인현에서는 돌이 벌떡 일어나 수십 보를 걸어갔는데, 돌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구부리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마치 사람의 모양이어서 더구나 해괴하였으나 그것이 무슨 변고가 될지는 알지 못하였다. 또 함경도의 바닷물이 붉게 탁해졌는데 아교처럼 끈적거리 배가 나아가기 어려웠다. 그 물을 끓여 만든 소금 또한 비려서 먹을 수가 없었다. 북으로부터 동쪽으로 강원도 통천에 이르렀고, 양양에 와서야 그쳤는데 무릇 7일 동안이나 그랬다. 또 서울의 서강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밤 모두들 놀라 산골짜기로 피하여 달아난 사람들이 많았다. 더러는 물건을 가지고 강을 건넌 사람도 있었다. 그 까닭을 물으니, 밤중에 기마대가 시달하는 소리가 서울로부터 들려왔다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전하며 놀라면서 이 같은 변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였다. 그 뒤, 사람들은 남관왕묘 신령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쑥덕거렸는데, 인심이 안정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았다.⁵⁵⁾

拜。皆曰。爲東國求神助卻賊。… 京師廟前。立二長竿懸兩旗。一書協天大帝。一書威震華夷。字大如椽。因風飄拂半空。遠近皆仰而見之。其帝號亦皇朝所道崇云。可見其尊崇之至也。

55) 柳成龍, 「記異」, 『西厓集』卷16. 雜著. 癸卯春. 京江露梁. 有大石自水中起立於岸上. 他石上. 又黃海道豐川海中. 有石沈在水底. 一日移立於他石上. 又江原道襄陽洛山寺下. 有二石自海中來闌於岸石上. 又慶尙道慶州慈仁縣. 有石起行數十步. 其起時. 衆皆見之. 曲折往復如人樣. 殊可怪. 不知其爲何變. 又咸鏡道海水赤濁膠粘. 不利行舟. 以水煮鹽. 亦腥不可食. 自北而東. 至江原道通川. 襄陽而止. 凡七日. 又京中西江人. 一夜相驚. 多奔避山谷. 或有搬移東西過江者. 問其由. 以爲夜中有兵馬廝殺之聲. 自京城而來. 聞者傳相驚駭. 疑有變如此. 其後人疑南關王廟神靈所爲云. 人心之不定類此.

4.2. 다양하게 노래된 「關廟」제영

한국 소재 「관묘」를 두고 읊은 시는 대체로 관왕에 대한 존숭, 관왕을 존숭하는 풍속에 대한 묘사, 태평성대를 노래한 시가 있는가 하면 「관묘」가 단순한 소재로 쓰인 시, 작자의 개별적 감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반성적 비판을 담은 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관왕에 대한 존숭을 나타낸 시를 보기로 하자.

삼가 관왕을 생각하노니,
일대의 영걸이로다.
살아서는 충절을 다하였고,
사후에는 명성을 드리웠네.
군신 사이에 뜻이 잘 맞음은
고급에 유일한 사례였네.
우리 황조께서도 감격하시어,
혈식을 폐하지 않으셨네.

恭惟關王。一世之英。生盡忠貞。死垂聲名。君臣際會。古今一例。感我皇祖。血食不替。

위의 시는 襄龍吉(1556~1609)이 안동의 관왕묘를 건립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서문에서 밝히고 쓴 것의 일부다. 만력 26년(1598) 구원병으로 온 명나라 眞定營都司 薛虎臣이 안동부에 주둔하여 학록산 남쪽 낙동강 가에 관왕묘를 건립하여 제향을 하게 된 경위를 말한 뒤 관왕에 대한 존숭의 뜻을 표현한 대목이다. '血食'은 국가적인 祭典을 말하는 것으로 관왕에 대한 제향이 끊이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⁵⁶⁾

56) 襄龍吉, 「武安關王廟碑銘 并序」, 『琴易堂集』卷6. 關王廟偏宇內。惟屬國無所建。有明萬曆廿六年夏四月。都司薛侯虎臣奉命東征。駐營本府。勝算未決。軍吏多暇。乃謀諸同駐諸將曰。惟茲關王。血食中土。蓋祀典然也。願惟朝鮮。恭事天朝。實同內服。未有王廟。夫爲大典。當此捨擯。以神道詔民。用兵之道也。盍立像宇。以妥王靈。以鎮夷禍。於是擇地於府城西北隅。背鶴而洛。盤鬱爽塏。乃伐石鳩材。鐫

공계선 절의로 한실을 떠받들고,
 신병으로 이웃나라의 위협에 도움 주셨네.
 자나 깨나 나는 목을 늘이고,
 강호의 길을 걸어 사당에 드네.
 곳은 비 내리는 벽에는 단청을 했고,
 상쾌한 바람에 깃발은 나부껴네.
 참으로 아름답도다! 공의 빼어난 수염이.
 이밖에 누가 영웅이라 하랴!
 公推扶漢義。陰祐海邦危。寤寐吾延頸。江湖路入祠。
 丹青冥雨壁。精爽颯風旗。信美髯之絕。英雄此外誰。⁵⁷⁾

이 시는 金昌翁(1653~1722)이 쓴 것이다. 작자는 관우를 존송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한실을 떠받든 절의, 둘째는 임진왜란 때의 陰佑, 셋째는 아름다운 수염을 들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를 들다가 한 마디로 '이밖에 누가 영웅인가?'라고 함으로써 관우만이 유일한 영웅이라는 단정을 내리고 말았다.

관왕은 한나라 때 영웅으로,
 영웅적 풍모가 천년토록 전해지네.
 인심은 관왕의 의열에 격동되어,
 온 나라가 한결같이 정결한 제사를 지내네.
 (중략)
 지난날 삼나라 왜구들을 내쫓아,
 혁연히 우리나라에 임하셨네.
 구름 속에서 온갖 군기가 내려오고,
 꾸짖는 소리 천지에 가득했네.
 이에 왜구들이 크게 무너지고,

治甫訖。未及揭虔。令申征勦。馳圍賊巢。適天心悔禍。夷酋自斃。厥將清正以下。亦響服天威。胆裂潛遁。是年冬十有二月。奏凱還營。侯乃卜吉。以某日朝。恭奉牲齊。俯伏灌薦。盼蠻既通。卽稽首告曰。

57) 金昌翁, 「關王廟」, 「三淵集」卷3.

신령스런 무위를 끝없이 떨치셨네,
 중원의 여러 장군과 군사들이
 이곳에 사당을 세웠다네.

(중략)

내 다행히 사당 근처에 살면서,
 그 분의 의리를 사모하여 항상 허리 굽혀 절을 했네.

(후략)

關王漢時雄。千載颯英風。人心激義烈。精禋萬國同。…
 往時逐烏寇。赫然臨大東。雲中萬磨降。呵叱聲豐隆。
 草窳乃大崩。神武揚無窮。中原諸將士。於此築靈宮。…
 我居幸隣近。慕義當鞠躬。… 58)

위의 시는 李獻慶(1719~1791)이 관묘에 배알하고 지은 시의 일부다. 인용한 앞부분에서는 관왕이 의리와 절개의 대명사가 되어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제향되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어서 관왕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음조하여 왜구들이 물러나게 한 공적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 사당이 건립된 사실을 언급하였다. 뒷부분에서는 작자 자신의 관왕에 대한 존숭의 뜻을 말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뒤주에 갇혀 죽은 세자로 유명한 장헌세자도 관묘를 두고 “충의는 천고에 걸치고/두터운 은혜는 임진란에 베풀셨네./동묘 남묘가 있어/큰 절개를 지금까지 전하네.”⁵⁹⁾라고 관왕을 존숭하는 뜻을 노래하였다.

이덕무는 「城市全圖」라는 장편시 가운데 “동묘 남묘가 서로 멀리 바라보고/영령을 편안히 하려 천년 세월 향기로운 음식으로 제향하네.”⁶⁰⁾라고

58) 李獻慶, 「謝關王廟」, 『長翁集』卷8.

59) 莊獻世子, 「關王廟」, 『凌虛閣漫稿』卷1. 忠義亘千古。洪恩千百年。東南廟宇在。大節至今傳。

60) 李德懋, 「城市全圖」, 『三言古詩』百韻○壬子四月命禁直諸臣製進。兵曹佐郎申光河, 檢書官朴齊家, 檢校直閣李晚秀, 右副承旨尹鼎兼及公, 兼檢書官柳得恭, 同副承旨金孝建, 前奉教洪榮游, 行左承旨李集斗, 檢校直閣徐榮輔, 前奉教李重蓮, 左副承旨李百亨, 兵曹佐郎鄭觀輝, 右承旨申耆, 注書徐有聞, 兵曹正郎鄭東幹, 前檢書官李嘉模。被選優等。六人之券。各有御評。公之券。書雅字。命六人。再試金剛一萬

하여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에서 관왕을 존송하는 풍속이 있었음을 전해 주고 있다.

채제공은 「坡谷八景」을 읊는 가운데 제8경으로 關廟習樂을 들고, “동해에 물결 자고 햇빛이 쨍쨍한데/허공에 울음소리 들리나 신마는 찾을 수 없네./사당에는 지금까지도 꽃피는 달밤이면, 한가로운 통소 소리 태평음이 들리누나.”⁶¹⁾라고 태평연월을 구가하였다.

「관묘」가 단순한 소재로만 쓰인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李慶全(1567~1644)은 경성의 관관으로 가는 지인을 관왕묘에서 전송하며, “패수의 긴 다리에 지는 해 흰히 비추는데/몇 번이나 헤어져도 이별의 정은 매한가지./짜증스러워라, 길옆에 새로 지은 사당은/관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별을 위해서라네.”⁶²⁾라고 하여 관묘를 단순히 송별의 장소로 말하였을 뿐이다.

金昌集(1648~1722)도 새벽에 읊은 시에서 “관묘 밖에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초동의 노래/영교 가에는 처량한 해로가⁶³⁾가 울려 퍼지네.”⁶⁴⁾라고 하여 만가가 울려 퍼지는 영교 가라는 공간과 초동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관묘 밖이라는 공간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단순 소재로 관묘를 끌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金昌業(1658~1721)이 중앙절 다음날 지인인 祐의 병이 깊어졌다는 말을 듣고 도성으로 들어가며 지은 시의 제3수에 “만나는 사람 대다수가 술에 취했고/관묘에는 저녁 해가 저물어가네.”⁶⁵⁾라고 한 바, ‘해 저무는 관

『千峰五十韻排律』, 『雅亭遺稿』12, 『靑莊館全書』권20. 東南關廟遙相望。妥靈千秋芬苾祀。

61) 蔡濟恭, 「坡谷八景」第8景 關廟習樂, 『樊巖集』卷3. 東溟波靜日華森。神馬嘶空不可尋。廟裏祇今花月夜。彩籥閑捻太平音。

62) 李慶全, 「關廟送鏡城半刺三首」제3수, 『石樓遺稿』卷1. 瀟水長橋夕照明。幾多離別古今情。生憎路左開新廟。不爲關王爲送行。

63) 사람의 생명이 마치 부추 잎에 내린 이슬처럼 허무하다는 뜻에서, 상여가 나갈 때에 부르는 輓歌를 일컫는 말이다.

64) 金昌集, 「曉吟」, 『夢窩集』卷2. 斷續樵歌關廟外。淒涼薤曲水橋邊。

65) 金昌業, 「重陽翌日。聞祐病有加入城」其三, 『老稼齋集』卷3. 逢人多帶醉。關廟夕陽暉。

묘'라는 시공간의 배경적 의미 이외에는 달리 함축적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묘가 단순한 소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아침저녁 이리저리 도박장으로,
하루에 천만 재미를 다 털어버렸네.
그대 보지 못했는가, 남관묘 한밤중 추위에
오돌오돌 떠는 거지들도 모두 당년에는 부자였음을!

朝東暮西博奕場 一日揮盡千萬貫。君不見南關廟裏半夜寒。乞兒總是當年豪
富漢。 66)

위의 장단구는 申靖夏(1681~1716)가 조카인 申昉(1685~1736)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이는 시다. 작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약소패 석강이라는 자가 부채에 행초서 시 한 편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가 노름을 좋아하여 가산을 다 날린 일이 있었으므로 이 시를 써주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남관왕묘는 거지들의 노숙처였다는 정보 이상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다. 곧 단순 소재로 쓰였기 때문이다.

任墮(1640~1724)이 도원을 향해 도성을 나서며 지은 시에서 “느릿느릿한 행색이 등문에 올라/관왕묘 뒷마을에 말을 매네.”⁶⁷⁾라고 한 것이나 申緯(1769~1845)가 불나들이 길에 지은 시에서 “북양문 남쪽의 관제묘엔/산 따라 익은 길에 풀이 우거졌네.”⁶⁸⁾라고 한 것, 姜瑋(1820-1884)가 行臺⁶⁹⁾

66) 申靖夏, 「與昉」, 『怨菴集』 권7. 尺牘. 昨日飯後體甚困。欲作策則懶不能強。方獨坐無聊。忽聞申愚少錫強者。以一扇求行草。欣然從之。然欲寫古人名句則無味。忽思此漢從來好着賭奕。罄失家財。其母曾甚憂之。故以數句寫贈。……未知此漢能知其意而有以改其前行否。汝可取而一觀。以發一笑也。

67) 任墮, 「三月廿六日。發向桃源。出城作。」, 『水村集』卷2. 遲遲行色上東門。立馬關王廟後村。

68) 申緯, 「謁關廟。小憩城陰賞春。是日也。兒孫偕來。荷蓑, 蘆窓, 蘭土亦至」, 『警修堂全藁』23冊. 祝聖三藁. 丙申正月。至四月。覆盜門南關帝廟。沿岡路熟草芊綿。

69) ‘행대’는 조선시대 지방관의 비위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과격한 사헌부의 관리를 말한다.

가 되어 나가며 관묘에 들러 배례하고 지은 시에서 “맑은 새벽 신령스런 바람이 울긋불긋한 깃발을 날리는데/관후사에 들어가 앞길을 물어보네./산 천에서의 노역은 평소의 할 일임을 알겠는데/국가의 평안은 멀기만 함을 절감하네.”⁷⁰⁾라고 한 데서도 관묘는 단순한 소재 이상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다.

서청에서 일찍이 벼슬했던 일,
 생각하면 목릉의 조정이었네.
 상감께서 관묘에 거둥하셨을 때,
 등가에 피리소리 어울렸었지.
 교산에 궁검 묻음 오래되었고,
 상전벽해 세월이 아스라하네.
 서글피라 다시금 찾아온 이날,
 외로운 녀 남모르게 녹아내리네.
 西淸曾忝侍。憶在穆陵朝。御蹕臨關廟。登歌雜鳳簫。
 喬山弓劍遠。桑海歲年遙。惆悵重遊日。孤魂暗自消。⁷¹⁾

「관묘」를 개별감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도 몇몇 있다. 위의 시는 申欽(1566~1628)이 갑인년(1614) 손님을 전송하느라 남관왕묘에 갔을 때 예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다. 남관왕묘가 건립되던 무술년(1598)에 작자는 선조를 모시며 홍문관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다. 首聯의 진술이 그것이다. 頷聯은 선조가 남관왕묘에 거둥하였을 때의 모습을 회

70) 姜埈, 「行臺 拜關廟 抽 三十四籤. 雖然 日下多驚險 保汝平安去復回 是謙辭也」, 『古歡堂收艸詩稿』卷13. 北遊續艸. 清曉靈風拂畫旌. 關侯祠裡問前程. 川原勞役知常分. 家國平安切遠情. 菴澤要人無豫具. 蔬田逸馬有數聲. 示我周行承貺厚. 應知對語成危傾

71) 申欽, 「南關王廟送客有感」, 『象村稿』卷10. 戊戌春. 南關王廟成. 天朝將官劉寅實革其事. 固請宣祖大王親臨. 宣祖大王命儒臣考出關王祠原係祀典與否. 時晚翠吳公億齡爲副提學. 余爲應教. 同直玉堂. 考大明會典則關廟在山川各神之列. 春秋降香. 以此具奏. 翌日. 宣廟駕如廟. 躬行祭奠訖. 天朝將官齊會祠下. 備呈雜戲. 都人謁觀. 今十六年矣. 適緣送客至廟. 愴然有懷舊之感.

상한 것이다. 頤聯에서 말한 喬山의 寶劍은 임금의 승하를 뜻한다.⁷²⁾ 尾聯의 ‘다시 찾아온’ 남관왕묘는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선왕에 대한 슬픔을 환기시켜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즉, 작자의 개별적 감흥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인 것이다.

인조 때 경상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된 鄭忠信(1576~1636)이 남관왕묘로 내려준 어사주에 감격하여 지은 “남쪽 교외 눈 내린 날 어사주가 향기롭고/떠나는 길 가득 따른 술 오래 마시니 영광일세./머리 조아려 북향사배 하니 감격의 눈물 흐르고/관왕 앞에 스스로 충성을 다하리라 맹세하네.”라는 시에서 관왕은 충성의 상징으로, 작자 자신의 충성심을 대신해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⁷³⁾

아침에 조랑말 타고 온 것은,
기린의 수령을 전송하기 위함일세.
기린이야 본디 잘 달리는 짐승인데,
어찌 현령쫄음으로 낭패를 보게 됐나.
신령스런 사당에서 서로 만나서,
술 한 단지 앞에 놓아두고,
술잔 들어 비염의 관공에게 삼가 올리나니,
영령께서 지금쯤 내려다보실는지.
달팽이 뿔 위의 분분한 싸움,
얻고 잃을 것이 다시 뭐가 있을까.
영웅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태산과 하나의 야똥한 언덕일 뿐.
그래도 영웅과 우리 사이에,
기와 우가 있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
우주를 울리는 시인의 노래 속에,

72) 黃帝를 喬山에 장사지냈는데 나중에 산이 무너졌을 때 보니 관속이 비어 시신은 없고 부장했던 활이며 검, 신발 등만 남아 있었다는 데서 임금의 죽음을 뜻한다. 莫洪의 『抱朴子』 極言 참조.

73) 鄭忠信, 「赴慶尙左兵營。宜醮于南關王廟。感恩。」, 『晚雲集』卷1. 南郊春日內醮香 行路榮看引滿長。稽首拜天揮感淚。丹心默自誓關王。

지는 햇빛 말 머리에 떨어지누나.
 朝乘款段駒。來送麒麟守。麟也本逸足。百里困顛蹄。
 相將神廟中。前有一樽酒。舉酒酌髯公。英靈今在否。
 紛紛蝸角上。得失復何有。英雄視吾人。泰山一培塿。
 但於其兩間。亦各奇與偶。狂歌激宇宙。落日在馬首。⁷⁴⁾

위의 시는 李植(1584~1647)이 인제 현감이 되어 떠나는 具仁基(1597~1676)를 관왕묘에서 송별하며 지은 것이다. 麒麟兒의 재주를 갖춘 구인기가 고작 인제 현감을 맡게 된 것을 위로하는 한편, 오랜 세월 동안 영웅으로 칭송되어 온 관왕에 작자와 구인기를 비교해 보면 태산과 언덕의 차이가 있다면서 蝸角之爭에서 무슨 득실이 있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관왕과 같은 영웅도 때를 만나지 못해 비명에 가고 말았으니, 때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탄하지 말자는 뜻을 관왕을 통해 나타냈다. 따라서 관왕 혹은 관묘는 작자의 개별적인 감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5. 마무리

이 글은 이웃나라 중국 문화의 산물인 「關廟」에 대한 조선조 문인들의 생각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關羽에 대한 祭享이 중국에서는 唐나라 때부터 시작되었고, 조선에서는 宣祖 때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양국 사이의 제향하는 의미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인들은 관우를 전쟁 때는 軍神으로, 太平時에는 가뭄·질병·기근을 해결해주는 신으로 崇仰하다가 근대에는 財神으로 숭앙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국가의 안녕을 비는 수호신으로 숭앙하였고, 관묘는 使臣(使)이 旅程의 무사를 빌거나, 邊方으로 나가는 文武官이 拜禮하는 곳, 그들을 위한 송별의

74) 李植, 「關王廟中 送具伯鞏赴任麟蹄縣」, 『澤堂續集』卷1.

장소이기도 하였다.

조선조 문집에 나타난 「關廟」 관련 詩文은 크게 중국 땅에 있는 祠堂을 보고 지은 것과 국내의 사당을 보고 지은 것으로 나누어진다. 위에서 논의한 것을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삼는다.

중국 소재 「관묘」에 대한 산문 기록은 대체로 明에 사신으로 갔던 이들의 朝天記錄이나 淸에 사신으로 갔던 이들의 燕行記錄에 나타나 있다. 그들이 본 「관묘」가 굉장·엄숙·장려하다는 진술, 그 건립사실에 대한 서술, 관왕 존송의 풍속 서술, 그에 대한 반성적 비판 등으로 나타난다. 선조조에 다수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사행록은 후대 담헌의 「연기」나 연암의 「열하일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국 소재 「관묘」에 대한 제영은 대체로 관왕에 대한 존송, 「관묘」를 통해 느낀 인생무상을 노래하는 등 感懷詩와 관왕을 존송하는 풍속에 대한 묘사, 관왕 존송 풍속의 변질과 반성적 비판 등 風物記로서의 시가 있는가 하면 「관묘」가 단순한 소재로 쓰인 시, 작자의 개별적 감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적을 쫓아달라고 기원하는 시 등으로 나타난다.

조선조 선조 이후 조선에 건립된 관묘에 대한 산문기록은 대체로 건치나 중수 경위 등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경우와 이미 건립된 사당에서의 제향에 대한 건의 등이 대부분이다. 고금도의 관왕묘가 명나라 수군 도독인 진린이 그 섬에 주둔할 때 세운 것이라든가, 안동의 관왕묘를 중수하게 된 경위를 쓴 것 등이 건치나 중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예다. 또한 지방 관묘의 제례는 고금도의 경우에 준하게 하고, 그 節日은 서울의 동·남 관묘의 예에 따르게 하는 등 관묘 제례에 관한 건의를 한 사례도 있다.

조선 소재 「관묘」를 두고 읊은 시는 대체로 관왕에 대한 존송, 관왕을 존송하는 풍속에 대한 묘사, 태평성대를 노래한 시가 있는가 하면 「관묘」가 단순한 소재로 쓰인 시, 작자의 개별적 감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반성적 비판을 담은 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조 문인들이 바라본 중국인들의 관묘 숭앙의 모습은 상당히 낮선 것이

었다.

조선조의 문인과 중국인들의 「관묘」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李圭景(1788~1853)의 「關壯繆辨證說」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규경은 이 글에서 祝允明的 「關王廣記」가운데 “宋 나라 때 武安王으로 追封하고 廟號를 義勇이라 했는데, 道家流가 또 神으로 信奉하고 있다. 關王을 義勇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옳지만, 그가 淸淨無爲한 도가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것처럼 신으로 신봉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도가의 修鍊術에는 반드시 魔鬼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대목을 인용한 뒤, 명나라 神宗 때 伏魔大帝로 추봉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였다면서, 宋完元の 다음과 같은 말을 빌려 이에 대한 명쾌한 풀이와 함께 千古의 獨見이라고 함으로써 조선조 문인들의 중국인들과는 다른 생각을 대변하였다.⁷⁵⁾

명나라 때 북마대제로 추봉한 것은 사실 마귀로써 마귀를 제어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마귀란 본시 자신만을 신봉해 주기를 바라는 존재이므로 도가류가 옛적 名上의 名目을 빌려 그 神異한 것을 나타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신봉하도록 만들려던 것이고, 진정 관왕의 신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⁷⁶⁾

조선조 문인들이 「관묘」와 관련된 중국의 문화현상 중 의용한 관우에 대해 존숭의식을 가지는 측면에서는 중국인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우가 신격을 띠고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시문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관묘」 제영 시문의 또 다른 문학사적 의의라고 하겠다.

● 핵심어 : 관묘, 관왕묘, 관제묘, 관왕숭배, 연행시

75) 李圭景, 「關壯繆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6, 論史類 2, 人物. 祝允明 關王廟記. 宋時. 追封武安王. 廟號義勇. 而道家者流. 又崇之爲神君. 夫以羽爲義勇則可. 又何關於淸淨無爲之道家. 而崇信至此. 意者修鍊之術. 必須驅除鬼神故然也. 宋[sic:明]之追封伏魔大帝. 卽其事也.

76) 같은 곳. 宋[sic:明]之伏魔. 卽以魔驅魔也. 魔欲奉己. 故假古上名目. 現爲神異. 使人仰望. 非眞有關羽之神如此也. 此千古獨見也.

<참고문헌>

- 卍國馨, 『甲辰漫錄』.
李圭景, 『關壯繆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經史篇 6, 論史類 2, 人物.
李 漢, 『關王廟』, 『星湖僊說』.
趙慶男, 『亂中雜錄』.
許 篈, 『朝天記』, 『荷谷集』.
- 강춘애, 「한국 관묘와 중국 關羽戲 연구」, 『샤머니즘연구』4, 한국샤머니즘 학회, 2002, 395~429쪽.
김명자, 「안동의 관왕묘를 통해 본 지역사회의 동향」, 『한국민속학』42, 한국민속학회, 2005, 75~104쪽.
김용국, 「관왕묘 건치고」, 『향토서울』25,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65.
김윤수, 「고종시대의 난단도교」, 『동양철학』30, 한국동양철학회, 2008.
김정숙, 「한중일 문헌단편집 속 요괴와 귀신의 존재양상과 귀신담론」, 『대동한문학』28, 대동한문학회, 2008.
김 탁, 『한국의 관제신앙』, 선학사, 2004.
김필래, 「관우설화연구」, 『한성어문학』,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1998.
박현규, 「명장 등자룡의 활약과 죽음」, 『한중인문과학연구』22, 한중인문과학연구회, 2007.
소재영, 「임진록 설화의 문학적 가치」, 『논문집』9, 송전대학교, 1979.
손숙경, 「19세기 후반 관왕 숭배의 확산과 관왕묘 제례의 주도권을 둘러싼 동래 지역사회의 동향」, 『고문서연구』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심승구, 「조선후기 武廟의 창건과 享祀의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유상규, 「한중 관제신앙의 사적 전개와 전승 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유 현, 「고종시대 관왕 숭배의 확산과 국왕의 정치적 태도」, 동아대학교

-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이경선, 「관우신앙에 관한 고찰」, 『논문집』8, 한양대학교, 1974.
- 이유나, 「조선후기 관우신앙 연구」, 『동학연구』20, 한국동학학회, 2006.
- 임승우, 「조선시대 안동읍성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관제신앙과 관제묘』, 한국종교사연구회, 2003.
-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409~412쪽.
- 전인초, 「관우」, 『인문과학』78,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 정연학, 「중국의 武聖, 關羽」, 『박물관지』,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4.
- 정은영, 「조선 후기 通信使의 關王廟 방문과 그 의미」, 『국제어문』50, 국제어문학회, 2010.
- 정일남, 「연행록의 관제묘 양상과 이미지」, 『동방한문학』33, 동방한문학회, 2007.
- 조용구, 「사대주의의 잔재 관왕묘」, 『한글한자문화』26,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1.
- 조재송, 「삼국연의 관우 형상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 『중국학연구』1999.
- 한중수, 「조선후기 숙종대 관왕묘 치제의 성격」,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마노 다카야, 이만옥 옮김, 『도교의 신들』, 들녘, 2001.
- 蔡東洲·文廷海, 『關羽崇拜研究』, 成都: 巴蜀書社, 2001.

<Abstract>

Some Aspects of Prose & Poetry about *Kwanmyo*(關廟) in
Private Anthologies in *Choseon* Dynasty & their Meaning

Kim Dong-uk

This paper aimed at clarifying writers thought in *Choseon* Dynasty about *Kwanmyo*(關廟), a shrine of *Kwanwoo*(關羽).

Kwanmyo(關廟) is the *Kwanwoo*'s shrine, who was a general of *Chokhan*(蜀漢)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in China.

Kwanwoo was performed a sacrifice at his shrine since *Tang*(唐) Dynasty. In *Choseon* Dynasty, it began at King *Seonjo*(宣祖).

Most of Chinese were respecting *Kwanwoo* as Mars in a wartimes, as a God solving a drought, a famine, a disease in a peaceful reign, as a God of wealth in recent times.

In *Choseon* Dynasty, *Kwanwoo* was respected as a guardian God, praying the welfare of Kingdom. *Kwanmyo* was the place praying the safety during an itinerary.

Envoys of *Choseon* Dynasty sent to China, wrote prose and poetry about *Kwanmyo*, viewing in places. They admired *Kwanmyo*'s splendid and wonderful scale, and was respecting *Kwanwoo*'s loyalty.

They were singing the uncertainty of time in changed condition with old times, were using a means expressing individual inspirations.

About the *Kwanmyo* established after King *Seonjo* in *Choseon* Dynasty, some writers clarified the whole story of construction, or proposed about sacrificial rites, The *Kwanmyo* was becoming

respectable object, was understanding that of bring about a curious affair. And was singing a peaceful reign, using as a simple materials, using a means expressing individual inspirations.

- Key Words: *Kwanmyo*(關廟), *Kwanwangmyo*(關王廟), *Kwanjemyo*(關帝廟), *Kwanwoo* worship, *Yeonhaengsi*(燕行詩)

* 이 논문은 2011년 1월 15일 투고되었고, 8월 8일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